

“나 없더라도, 북녘 가족에게 꼭 전해주세요”

광주 남구 첫 발행 '이산가족 스토리북' 들여다보니

이산가족 16명 가족과 이별 과정·고달픈 인생 등 담아
통일부·지자체 등 전국에 배부 평화교육 용도로 활용

‘꿈엔들 잊힐리아’. 70년 동안 부모·형제와 만나지 못하고 그리움에 살고 있는 광주지역 이산가족들이 있다.

고향을 떠나 왔거나 전쟁으로 가족을 북녘에 두고 온 이들은 가족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버티며 살고 있다. 인젠가 만날 희망을 키우며 살아가는 16명의 이산가족 이야기가 담긴 책이 나왔다.

1960년부터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정착해 살고 있는 조병분(89)씨는 책을 통해 “그곳이 내 고향이 어도, 그곳에 내 부모와 형제가 살아 있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급단의 땅이 됐다”고 했다.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뜻말이 붙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조씨는 국가유공증서를 자랑스럽지만 슬픈 증서라고 소개했다.

개풍군 개성리에서 태어난 그는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개성리에서 아버지를 도와 정미소에 일했다고 한다.

전쟁에서 UN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북으로 입성하면서 조씨는 북한 의용군에서 탈출한 사람으로 의심을 받아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보내졌다. 이후 석방됐지만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됐다.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던 조씨는 군인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고향에 하루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입대한 그는 최전방에서 전투를 벌였다.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입대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고향을 향해 총을 쏘야만 했다는 것이 조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다.

조씨는 앞에서 동료가 죽고 그가 쓴 총탄에 고향사람과 형제들이 쓰러져 가는 비극을 겪었다. 전



박영숙씨

조병분씨

쟁이 끝나면 고향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남북이 휴전선으로 갈라지면서 고향 땅을 70년 동안 밟지 못하고 있다.

함경남도 북청군 양화면이 고향인 박영숙(여·86)씨도 70여년간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부른다고 한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떠나올 때면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라는 가사를 내뱉을 때마다 아직도 어머니의 얼굴과 고향 집 풍경이 눈에 선하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12월께 중공군이 젊은 여자와 남자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자 박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 보따리를 싸주며 피란길을 재촉했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지만 피란길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이 박씨의 사연이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두고 박씨는 중공군을 피해 속초, 주문진, 부산을 거쳐 거제도까지 내려왔다.

통일이 되기를 기다리다 박씨가 스물네살이 되자 박씨의 아버지는 결혼 상대를 알아봤다. 아버지가



이산가족 스토리북 ‘꿈엔들 잊힐리아’에는 북측의 가족을 둔 이산가족들이 직접 쓴 애절한 편지들도 담겨있다.

원하는 사윗감은 이북 남자였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남한이 고향인 남자랑 결혼하면 가족이 다시 생이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함경도 출신의 남성과 결혼을 한 박씨는 광주에 정착해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광주시 남구는 25일 이들 16명의 이야기를 담은 이산가족 스토리북 ‘꿈엔들 잊힐리아’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들의 가슴아픈 사연을 풀어냈다.

/민원기 기자 hyunki@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인상 첫 적발부터 60만원 ‘6배’

다음달부터 무등산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번째 적발부터 기존 10만원이던 과태료보다 6배 많은 6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가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라이터·부탄가스 등의 인화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상향된 과태료를 내야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 음식 힐링 페스티벌

북구 27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로 지친 지역민을 위해 ‘광주대표음식 힐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북구는 27일 오전 10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광주대표음식 힐링 페스티벌’을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민들의 참여를 위해 ▲힐링체험 ▲전시 ▲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북구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상추튀김 지슴채반, 육전 트레이, 광주오리탕 오리도자기 등을 만들 수 있는 예술체험이 진행된다. 직접 만든 그릇 등은 가져갈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주먹밥 북구어린이 경연대회’가 열린다. 주먹밥 만들기 우수 학생에게는 북구청장상을 수여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두환 재판, 문힐 뻔한 5·18 헬기사격 알렸다”

김정호 변호사, 5·18 전두환 재판 의미와 성과 보고회

“발포명령자·암매장 등 진실규명 위해 계속 관심 필요”

전두환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은 문힐 뻔한 5·18 헬기사격 사실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평가는 25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문화센터에서 열린 김정호 변호사의 ‘5·18 전두환 재판의 미와 성과 보고회’에서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보고회에서 “전두환씨 재판은 논란이 일었던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를 역사적 사실로 진상 규명한 재판이다”고 평가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헬기사격과 계엄

군 총기 사용은 없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방부 보고서와 헬기사격 목격자, 계엄군 등을 종합해 헬기사격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이로써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논리도 바탕부터 허물어지는 계기가 됐으며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에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형사사건 공소각 판결로 문힐 뻔한 ‘계엄군 헬기사격’에 관한 진상을 민사판결의 차원에서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초등학교 일제식 자필평가 중단하라”

광주 ‘학벌없는시민모임’ 촉구

광주시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의 일제식 자필평가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단위 자필평가를 폐지했음에도 광주송원초교가 3~6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4~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경시대회를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수학 경시대회의 경우 고난도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필고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학생에게 수상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이 있고, 높은 성적을 낸 학생들만을 외부대회에 출전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시교육청도 광주송원초교에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원기 기자 hyunk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